

2011 KINU

알기쉬운 통일교육

12 주제 프리젠테이션

제4부

독일통일



2011 KINU

알기쉬운
통일교육
12 주제
프리젠테이션

제4부

독일통일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프리젠테이션

제4부 독일통일

인 쇄: 2011년 12월 20일

발 행: 2011년 12월 29일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97.4.23)

주 소: (142-728)서울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900-4300 (직통)901-2521 (팩시밀리)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 · 레이아웃 디자인: 도서출판 오름(02-585-9123)

인쇄처: 도서출판 오름(<http://www.oruem.co.kr>)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제 4 부

통일교육

제10강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서독의 통합정책 3

제11강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서독의 대동독 통합정책 23

제12강

통일독일의 성공적인 국가건설 42

EDU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독일통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서독의 통합정책

국가 성장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서독의 통합정책

Contents

1 독일통일 사례의 중요성

2 냉전기 (1945~60년대 말) 통합정책

3 긴장완화기 (60년대 말~70년대말) 통합정책

4 신냉전기 (70년대 말~통일) 통합정책

한국에 주는 의미

● 선례가 없었던 독일통일

- 우리의 미래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통일사례

● 동서독과 남북한의 상이한 환경과 조건

- 차이와 유사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

● 시사점 발견 및 적용을 통한 남북한 미래 준비

- 경제 · 시간 · 사회적 비용의 감소

● 성공적 통합 사례로서 독일통일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필요

- 부정적 측면 위주 사례 관찰의 부작용 주의
- 독일통일의 유 · 무형적 편익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제고



40년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동서독 통일을
형상화 한 조각

냉전기(1945~60년대 말)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독일정책

- 전쟁 재발의 위험성 제거를 위해 2차대전 종전 이전부터 분할논의
- 종전 후 독일의 분할(전 독일 및 베를린을 각각 4개 지역으로 분할)
- 베를린 조약(1945년 6월 5일)

● 독일의 주권 상실

- 연합국관리위원회의 독일 통치
- 미, 영, 불의 서독 관리(단일 경제권으로 통합)
- 소련의 동독 관리

● 독일영토 일부 폴란드 편입, 영토규모 축소



분단과 함께 1949년에 각각 건국된 서독과 동독

냉전기(1945~60년대 말)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 정세

독일의 패망

사회주의

VS

민주주의

- 동서방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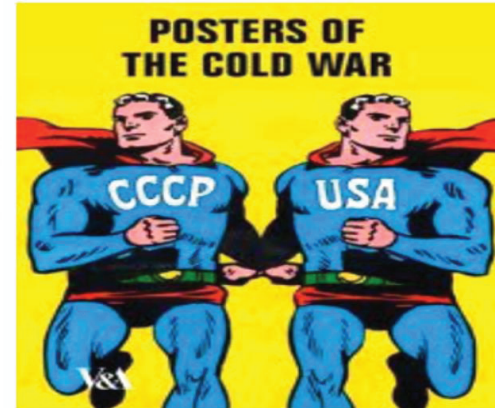


동서방의 대결



냉전, 군비경쟁

-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된 동서방 냉전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동·서방 냉전시대 상징 포스터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패전국 독일의 현실

국가 분할

국토 상실 + 분단

공개될 수 없는 국가 목표

통일

서독 초대수상
아데나워의 전략서방 전승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서방통합정책 추진국제사회의 신뢰 확보
국가 성장
긍정적 통일환경 조성 시도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미국 및 주변국의
긍정적 반응

불신 감소

분할 관리 체제의
유지 고수

서독군 재건

미국의
서유럽 설득1954년 서독의
나토 가입
군사적 재무장

국제정세 변화

미국의
군사적 무장
필요성 대두공산주의 확산
위협 차단을 위해
서독 활용
필요성 제기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서독의 경제적 재건

필요성 대두

마셜 플랜을 통한
미국의 지원1960년대
라인강 기적동독에 대한 서독의
적대적 정책

할슈타인 정책(1955) 고수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대동독 정책 추진

긴장완화기(1960년대 말~70년대 말) 서독의 동방통합정책

● 1960년대 말, 미·소의 긴장완화 필요성 인식

냉전 지속에 따른
군사비
부담 증대

냉전에 대한
미국내 부정적
여론 확산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소련의
태도 변화

● 화해(데탕트) 시기 도래

- 미·소 및 미·중의 **숨고르기** · 교류



1972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이 조우하는 장면

서독의 동방통합정책

한계에 봉착한 아데나워의
대동구권 정책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 요구 제기

동구권과의
통상관계 필요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따른
정책 한계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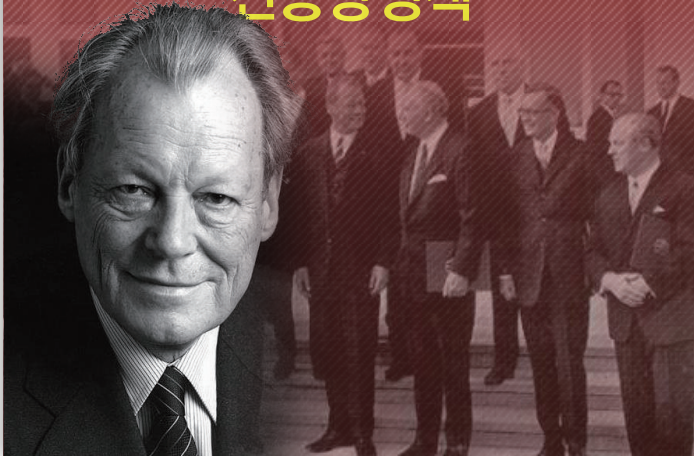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인한
독일분단 상황의 악화

동서독 주민의
고통과 불만 고조

서독의 동방통합정책

서베를린 시장(1957~66) 재임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동구권에 대한

개방적 외교정책 기조 유지

할슈타인 원칙 포기

장기적 · 점진적 통일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



서독의 동방통합정책 (국제)

동서 긴장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과 통일 추구

소련과 적극적 관계 회복(1970)



동구권 국가들과
국교 수립 및 우호 관계 유지

유럽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

폴란드 국경 인정(1970)

베를린 문제해결(1971)

독일문제를
유럽 평화질서 구축
차원에서 접근

1975년 헬싱키최종의정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출범

서독의 동방통합정책(대동독)

빌리 브란트의 전향적
대동독 정책 추진

가까운 장래에

통일 달성 어렵다는 것 인정



동서독

평화공존 정책 추진

전세계 독일민족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실천

동독의 실체에 대한 인정

이데올로기 대립 삼가
체제와 개인에 대한 분리적 접근

제도적 차원에서
동서독 교류협력



동독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

신냉전기(1970년대 말~통일) 서독의 균형정책

● 신냉전 시대 도래

- 동서방 밀월 관계의 종료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
-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 배치를 둘러싼 갈등

● 서독의 외교적 한계 인식

- 서독 외교의 종속적 상황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사진

신냉전기(1970년대 말~통일) 서독의 균형정책

보수당정권 헬무트 콜 수상의 등장

● 서방 동맹국과 관계 강화 추진

- 서방과의 철저한 동맹관계 유지 필요성 인식
- 미국 핵미사일의 독일 배치 허용
- 미국의 전략방어계획 동참의사 표시

● 유럽 분단극복을 통한 독일통일 달성 추구

- CSCE를 통한 동독 및 동구권과 관계 지속
- 대서방 동맹정책, 동독 및 동방정책 간의 균형 추구
- 동서독 관계 유지 추구

● 콜의 동서 가교 정책

- 미소 제네바회담(1985) 성사에 기여
- 미소의 신뢰회복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추진

서독의 균형정책

● 경제력에 바탕을 둔 대소련 외교의 성과

- 소련에 대한 서방의 경제원조에 적극 참여
- 소련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기여
- 서독·소련 정상회담
- 동독과의 관계 유지에 기여

● 동서방 균형 정책을 통해 서독의 입지 구축

- 독일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
- 파시스트적 독일과 단절된 새로운 서독의 모습 각인



통합정책의 실익

국가성장: 정치외교, 군사, 경제

서독에 대한 신뢰 형성

동서독 접근의 외부 환경조성

베를린 장벽 붕괴 상황에서
미국, 서유럽 및 소련을
설득하는데 용이하게 작용



분단국 한국의 과제

주변국과 상생하는 **통합정책 추진**
- 정치 · 군사 · 경제 · 문화 · 환경 -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본토대 마련
남북통합정책

주변국간 상생공영 유인

미국과 중국간 상생공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남북한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상이한 태도

Two Korea Policy의 매력

한반도 분단을 평화로,
통일을 평화의 파괴로 인식할 수 있는 주변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구심, 불안**

상생공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각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호응유도**

통일은 가슴속에, 통합은 소리높여
국가 성장과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국의 통합정책은 미국과 돈독한 동맹관계에서 출발: 가치공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통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제고

중국지역통합정책과 남북통합정책 병행 추진

생각해 봅시다!



EDU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독일통일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서독의 대동독 통합정책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서독의 대동독 통합정책

Contents

1 대동독 정책기조의 수정

2 교류를 통한 동독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3 독일통일을 가져온 동독주민의 민족자결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양독 관계 개선

1973년 동서독
유엔 동시가입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기초 마련

슈미트의
현실주의적
독일정책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양독 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동서독 교류
목적의 수정

동독압박이 아닌 동독주민의 삶 향상 추구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 동서독간 광범위한 교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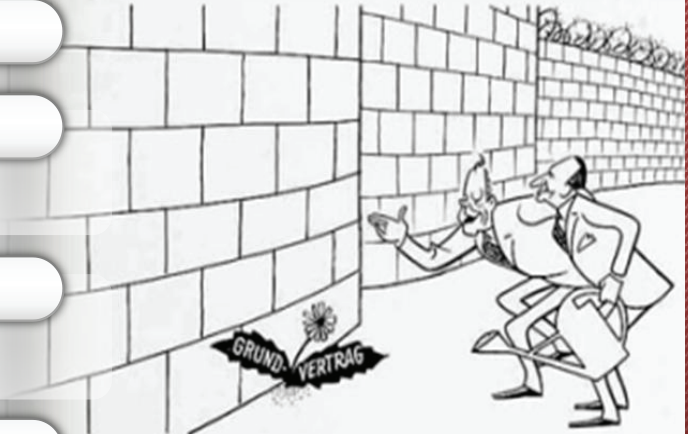
● 동서독간 제도적 합의 필요성 제기

- 제도적 교류협력 필요성 인식
-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 대동독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

- 서독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 대동독 정책에 대한 진보·보수 정당 간의 일관된 입장 지속

● 동독의 자유와 인권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인식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이 베를린 장벽 붕괴를 가져오길 기대하는 빌리 브란트와 그의 참모 에곤바를 그린 삽화

... seiner starken Wurzeln wird er alle Mauern sprengen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광범위한
교류 추진

정부기관, 교회 등에 의해 물적·인적 등 **다방면 교류 추진**

사회 인프라 확충
위한 교류 실시

서독-서베를린 간
교통망 구축 및 유지

서베를린 및 동독주민의
생활조건 개선

동서독 교역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동서독 교역을
내독교역으로 간주

비관세
원칙 적용

부가가치세 경감 및 면제조
치, 금융지원 실시

동독에 대한 차관(10억 마르크) 무상 제공

동독 정치범 석방 및 이산가족 결합 추진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동서독 청소년 교류

청소년 세대 간의 민족동질성 유지를 위한 교류 실시

여행, 토론회 등 양측의 선입견,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서독청소년 수학여행의 75%가 동독에서 진행
(서독정부의 재정지원)

청소년 교류 실시

서독 방문 장려

동독에서 수학여행 진행

여행, 토론회 실시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문화·체육 교류

- 동독의 소극적 태도(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
- 1986년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
- 문화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획득 구조 유도

학술 분야 교류

- 양측 학자, 전문가 교류 진행
- 서독학자, 학생의 동독 방문
- 동독학자의 서독방문 추진

예술·체육 분야 교류

- 연극, 오케스트라의 상호방문 진행
- 동독은 정치 선전의 일환 예술교류 참여
- 체육교류가 양측간의 긍정적 정서 형성에 기여



1989년 통일 직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던
동독 축구국가대표팀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동서독 언론/방송분야의 교류

동독주민의 서독방송 청취 추진
(동서독 문화, 언어, 역사적 공통성 보존)

동독상주 서독특파원의 보도를 통해
자국내 정보 취득

서독방송을 통해 동독주민의
물질적 욕구 자극

필요한 서독사회에 대한 동경 유발



동독에 대한 뉴스를 다루고 있는 서독언론

서독언론은 통일 전 동독주민에게 동서독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서독방송에 대한 동독주민의 신뢰



- 동독의 폐쇄성 극복 유도
- 동독주민의 상당수, 서독방송 청취 (1985년, 40%의 동독가정)
- 동독주민, 서독방송 신뢰
- 동독주민이 동서독체제에 대해 알게 하는데 기여
- 동독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

분단시절 동독주민의 서독방송에 대한 신뢰정도

척도	내용	답변비율(%)
0	완전 불신	9
1~3	거의 불신	10
4~7	거의 신뢰	56
8~10	완전 신뢰	25

출처: 통일원(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700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서독의 교류 목표

- 서독은 긴장완화와 분단고통 감소라는 정치적 목표달성을 추구
- 내독 교역을 통해 동독 주민에게 동서독 체제 비교의 기회제공
- 발전된 서독상황 소개를 통해 독일 통일의 주도권 확보 추구
- 정치 문제를 경제교류 협력에 연계시키지 않는 정경분리 원칙유지

동독주민에게 서독이란 희망을 심어

동독의 교류 목표

- 서독의 지원을 통해 경제문제 해결 시도
- 서독으로부터의 자본주의 영향 최소화



통일 주도권 확보



경제발전

내독 교역의 성과

양독 관계 안정화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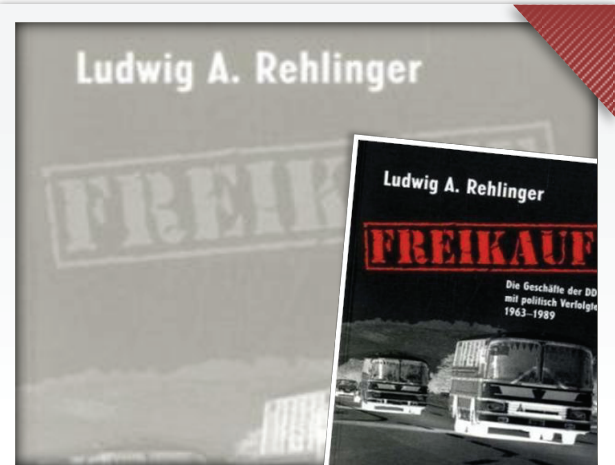
동독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물질적 기여

- 경제적 대가의 동독사회 유입을 통한 동독주민 삶의 질 개선
- 교회를 통한 현물지원 (교회 및 병원 시설 확충, 유지)
- 체제저항 세력형성 위한 밑거름이 됨

인적 기여

- 동서독 이산가족 재회 및 동독인(250,000여명), 서독으로 이주
-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의 자녀(2,000여명), 서독으로 이주
- 현물 제공 방식으로 동독 정치범 석방
- 통일 전까지 31,755명의 정치범 석방 및 서독 이주
- 도덕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고통 당하는 정치범 지원추진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를
직접 다뤘던 관계자가 쓴 저서

동독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기회확대

- 동독인의 서독방문 증가 (1986년부터 매년 380만 명)
- 물질적 혜택 제공을 통해 동독인의 서독방문 유도
- 동독주민이 서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서독인의 동독방문 기회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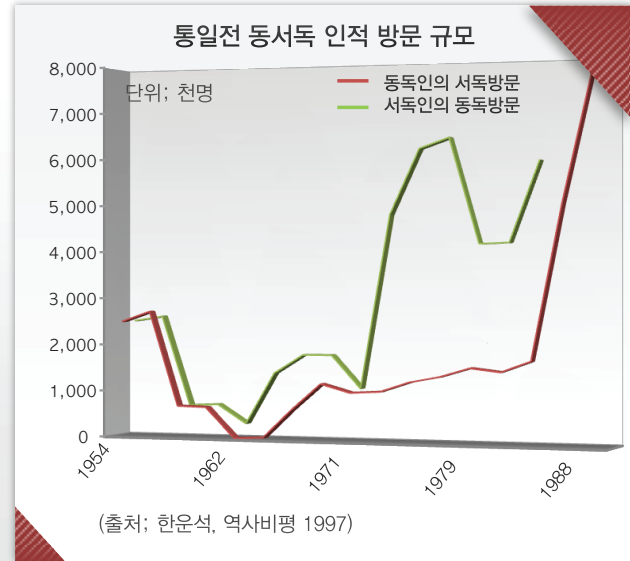
- 제한되었던 동독방문 기회증가
- 여행, 공무 등 방문제한 완화

동서독 인적교류 효과

- 동서독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에 기여

문화예술 분야 인력교류를 통해 체제비교 기회제공

- 동독 예술가에게 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로 작용



동서독 교류가 동독사회에 끼친 영향

동서독 주민간 유대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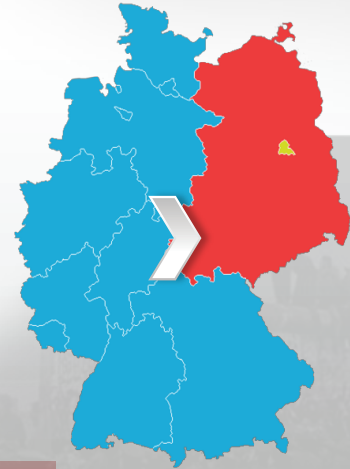
- 동포의식, 동질감을 유지하게 하는데 기여

서독의 발전상, 풍요에 대해 인식

- 서독에 대한 관점, 동독주민의 인식변화

인식 변화가 체제변화에 기여

- 동독내부의 점진적 변화 잠재력을 축적
- 동독 사회체제에 대해 비판적 의식형성 기여
- 동유럽 자유화와 함께 외형적으로 표출



내독교류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

- 동독 독재정권의 붕괴를 지연?

통일 도화선이 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11.9)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자유화 바람

-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 · 개방

동독내에서 일어난 변화의 조짐

- 변화에 대한 기대 대두
- 동독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가시화
- 대규모 동독 탈출행렬(30여 만명)
- 여행자유화 개혁에 대한 요구증가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전후 동독을 떠난 동독 주민 수

단위 : 명

기간	무단 탈출자	허가받은 탈출자	총
1989년 4월	891	4,996	5,887
5월	1,527	9,115	10,642
9월	21,352	11,903	33,255
10월	26,426	30,598	57,024
장벽붕괴 후 11월			133,429
12월			43,221
합계			343,854명

(출처; 국가정보원 2009,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p.453)

통일의 도화선이 된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11.9)

고조되는 변화에 대한 요구

- 고르바초프의 일성 “늦게 오는 자는 인생의 벌을 받는다”
- 월요평화기도회와 촛불시위의 급속한 확산

동독정권의 미온적 대응

- 호네커 서기장 퇴임과 부응에 못 미치는 개혁 선언
- 계속되는 탈출 행렬
- 임시 여행법안 마련

베를린 장벽의 붕괴

- 임시 여행법안의 우발적 공포
- 베를린 장벽으로 운집한 동독주민
- 베를린 장벽의 붕괴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서베를린을 방문하는 동독인 자동차 행렬

동서독의 합작품 “독일통일”

신속한 체제 통합 과정

- 동독 재야세력의 정치세력화 및 원탁회의
- 조기총선 실시 - **독일민족의 자결권 행사**
- 서독편입 방식의 신속한 통일 추진
- 동서독 통화, 경제, 사회통합 조약체결
- 독일의 단일성 회복에 관한 조약(통일조약) 체결
- 독일통일의 날 선포(1990년 10월 3일)



1989년 11월 철거되는 베를린 장벽

동서독의 합작품 “독일통일”

독일통일의 주역 - 동독주민

- 장벽붕괴를 가져온 동독주민의 자발적 의사표현과 행동
- 동독 탈출과 체제개혁 요구: 베를린 장벽의 붕괴
- 장벽붕괴 후 서독편입 결정: 민족자결권 행사

동서독 교류와 독일통일

- 동독주민의 서독사회에 대한 인식 신장
- 체제변화 요구 분출에 기여
- 서독체제로의 통합 요구



북한의 변화와 평화적 통일 북한주민의 **자발적 결정 및 행동 필요**

- 제도적 교류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체감
- 체제비교를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 북한주민의 대외인식 및 행동변화 여건조성

남북한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

- 평화적 통일 달성
- 외세 개입 차단



북한주민에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대북/통일정책

- 전세계 모든 한민족의 인권문제에 관심: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실천
-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
- 국군포로, 납북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의 피해자: 인권문제 해결
- 북한이탈주민 포용 - 통일 전령

생각해 봅시다!



EDU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독일통일

통일독일의 성공적인 국가건설

[통일편익]

통일독일의
성공적인 국가건설

Contents

1 정치·군사적 편익

2 경제적 편익

3 사회·문화적 편익

민주적 정치체제와 정치적 자주성 획득

성공적인 정치체제 통합

- 1990년대 초, 동서독 정당 통합
- 구동독 주민을 대표하는 정당 및 정치 집단 형성
- 서독식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구축



성공적인 정치체제 통합



2005년 연방 정부의 수상으로 선출된
동독출신 정치인 안젤라 메르켈

민주적 정치체제와 정치적 자주성 획득

정치체제 통합 결과에 대한 비판

- 구동독 정치의 구서독 체제로의 흡수
- 구서독 정당체제의 구동독지역 확장
- 낮은 구동독 출신 정치엘리트 비율
- 정치체제에 대한 경험 · 이해 부족

외교적 영향력 확대

- 막강한 경제력 바탕, EU 통합 주도적 추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요구
- 분단극복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적 역할 강화

민주적 정치체제와 정치적 자주성 획득

정치체제 통합 문제점에 대한 반론

- 서독 정치계의 지원과 도움의 불가피성
- 동독정치인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기 까지 서독출신 정치인의 역할 필요
- 동독출신 정치인의 활약 증대
(동독출신 수상, 안젤라 메르켈 기민당 대표)
- 자리잡아가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인식

의회정치 체제 운영기반 단시일 내에 마련



서독정치계의 지원과 도움
외교적 역량 확대

군사적 자주권 확보

분단 서독의 군사적 주권 회복

- 4대 전승국의 관리를 받던 분단국 서독
- 분단 후 미국, 유럽주변국 7개국의 병력 401,112명 주둔
- 서베를린 지역 1만2천 명 가량의 연합군 주둔
- 동독지역에 385,000명의 소련군 주둔
- 통일 후 주둔병력 규모의 현격한 감소

독일주둔 NATO군 감소 추이

단위 명

	1990년 기준 병력	1994년 조정 병력
미 국	250,000	약 75,000
영 국	66,000	약 23,000
프 랑 스	44,200	15,000
벨 기 에	27,300	3,500
네덜란드	7,700	5,200
캐 나 다	7,700	6,300
계	402,900명	약 128,000명

출처: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일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군사적 자주권 확보

통일 후 군사비 부담 감소

- 통일 당시 73만여명(서독 51만, 동독 22만)의 병력 유지
- 통일 후 37만여명으로 축소
- 전체 국방예산의 감소 [분단 시절 20% → 통일 후 10%]
- 줄어든 국방예산의 생산적 활용

독일군 감소 추이

단위 명

	독일군 감소 추이		단위 명
	통일 전	통일 후	
서독	정규병력	495,000	370,000
	국경수비대	20,000	
동독	정규병력	173,100	
	국경수비대	47,000	
합계	735,100		

출처: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통일관련연구자료: 군사분야 200~75」(주독대사관 무관부, 1992.9)

군사적 자주권 확보

자주권 회복에 따른 권리 행사

- 적극적인 국제 활동
- 평화유지활동에서 해외파병
- 전투작전 수행

국제 위상의 현격한 변화

-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참전 거부
- 독일의 군사적 자주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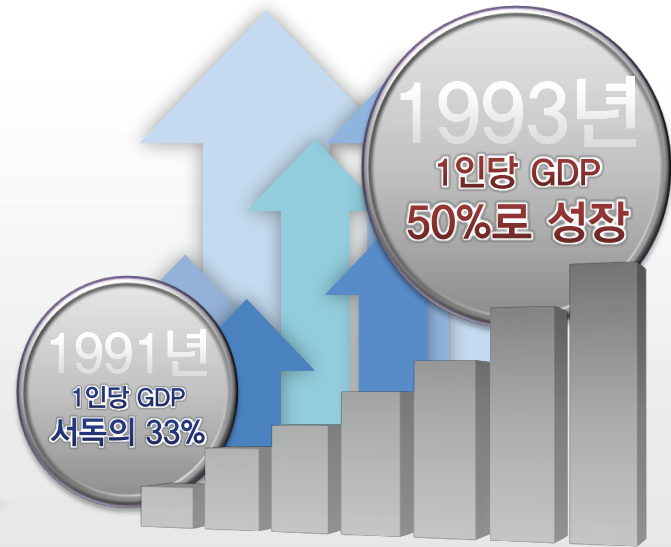
경제체제의 성공적 전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경제 재건

1990~1993년 체제전환 단계

- 철도, 도로, 통신 등 간접자본 확충
- 민영화에 따른 임금상승, 실업으로 구동독 경제가 일시적 후퇴
- 1991년 중반, 경제 회복으로 1인당 GDP와 경제생산성이 빠르게 상승

1인당 GDP ↑ 경제생산성 ↑



경제체제의 성공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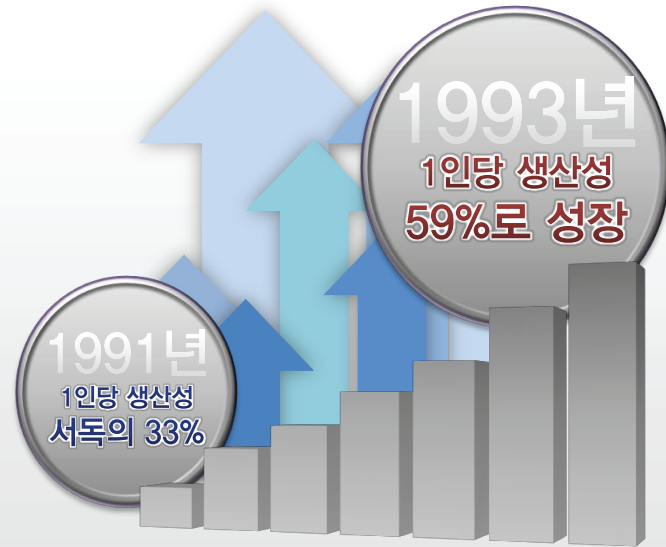
1994~1997년 체제 적응 단계

-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후 동독경제 1989년 수준 회복
- 건설경기 호황으로 1994년 16.6%, 1995년 8.2% GDP 성장률(서독의 3%대)
- 1996년까지 연평균 9% 높은 경제성장 기록
- 1997년 이후 다소 둔화세 (높은 임금 상승률 원인)

1994년 16.6%
1995년 8.2%



높은
GDP 성장률



경제체제의 성공적 전환

1998~2002년: 정체시기

- 경제성장이 1~2%대로 정체
- 세계경제 악화
- 동독지역의 높은 임금상승률
- 생산분야 성장잠재력 상실

2003년~현재: 신재건전략 추진시기

- 동독재건 정책 추진
- 연평균 3.8% 높은 성장세 나타냄
- 실업률 감소



건설이 한창 진행중인 베를린 모습

경제체제의 성공적 전환

꺾목할만한 경제성장

- 단기간에 경제체제의 민영화 완료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역동적 투자기반 마련
- 구서독보다 더 우수한 사회간접시설 현황

경제규모 성장

- 구동독주민 1인당 GDP가 통일 전 7,330 유로에서 ▶ 2007년 21,106 유로
- 서독 경우 통일전 21,841 유로에서 31,061 유로로 증가
- 개인소득 측면에서도 서독의 58%에서 85%로 향상
- 서독지역보다 낮은 동독의 물가수준을 감안시 동독인 개인소득 수준은 서독의 90%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

남아있는 과제

자립적 경제체제 구축 미흡

외부 재정지원에 의존

2009년 연간 700억 유로의 재정이전 필요

- 외부 재정이전 비용의 약 50% 비생산 부문에 사용

통일초기 경제정책의 문제점 노출

- 비합리적 화폐통합 정책의 부작용
- 동독산업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대규모 실업

서독지역을 100으로 본 경우, 구동독지역 동화과정 지표

지표	1995	2007
1인당 국민총생산	60.6	67.9
1인당 장비 및 시설투자	105.0	64.8(2004년 기준)
평균임금	74.8	77.5
노동생산성 (노동자별 총생산)	66.4	77.1
노동생산성 (노동시간별 총생산)	64.3(1998년 기준)	73.1
시간당 생산가	112.7	100.3

출처: Klaus Steinitz, "Neue Bundesländer," p. 443(베를린은 서독지역에 포함)

남아있는 과제

통일 초기 경제통합정책 비판에 대한 반론

- 신속한 통일 추진에 따른 정치적 결정의 불가피성
- 상이한 경제권 운용시 동독인의 대규모 이주상황 발생

1대1 화폐통합의 긍정적 측면(할레 독일경제연구소)

- 동독주민의 구매력 증가
- 동독주민의 대규모 소비 ≫ 서독의 생산 및 고용을 확대

동독 경제체제 전환 과제

- 사고, 생활방식 등 삶의 모든 부분의 변화 필요
- 동독재건 ≫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경제 프로젝트
- 경제학자 파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단언”

여전히 진행중인 경제체제 통합

- 남북통일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시

통일이 개인에게 가져온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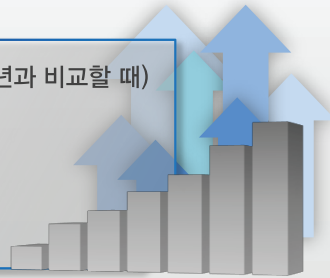
● 통일을 통해 동독주민이 얻은 혜택

- 여행의 자유,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
- 포괄적 자유, 교육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 등
- 정치, 사상, 언론, 거주이전의 자유

● 동독인 생활의 구체적 변화

(로스톡 대학 의료심리학 연구소)

- 수명 6년 가량 **연장** (1991년과 비교할 때)
- 소득 4배 **확대**
- 여가시간의 **확대**
- 노동시간의 **단축**



2010년 10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열린 독일통일 20주년 기념축제 장면

통일이 개인에게 가져온 편익

● 생활환경 조건 개선



• 대기, 토양, 수질
환경의 현격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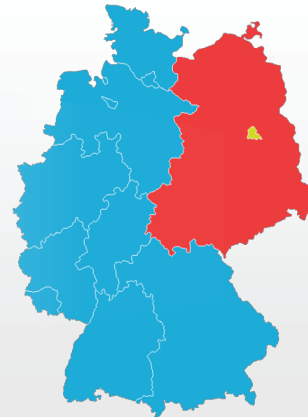


• 의료 및 보건환경의
확충



• 재건을 통해 서독보다
현대화된 동독의 도시들

● 삶의 유, 무형적 조건들이 현격하게 개선



심리적 통합 과제

• 남아있는 해결 과제

- 사회·문화적 통합 문제



구직센터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독주민들

• 문제의 근원

- 구동독 주민의 실업문제
- 급격한 체제 변화 과정에서 지난 동독에서의 삶, 과거에 대한 정체성 상실



심리적 통합 과제

- 구동독인 일부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함

- 구동독인의 22%,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식
- 구동독인의 62%, 구동·서독지역과도 연결 되어 있지 않음

- 동서독 주민 간의 정서적 유대감



심리적 통합 과제

경제통합 문제와 사회·문화적 통합과의 연관성

- 실업문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
- 동독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2008년 39%, 1990년의 59%
- 통일 초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만족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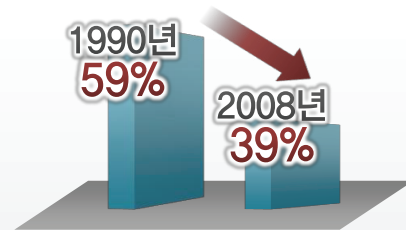
독일통일의 긍정적 평가

- 동독주민의 54%, 통일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신장 평가
- 동독주민의 70%, 통일 후 동독지역이 크게 발전 및 물질적 생활개선 평가
- 동서독 주민의 90%, 베를린장벽 개방과 통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질적인 체제 통합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 발생

- 남한에 주는 시사점

[동독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동서독주민 90%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독일통일에 대한 균형적 인식

종합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독일의 통일편익을 통해 남북통일의 새로운 비전 개발



• 라인강의 기적에 이은 엘베강의 기적



• 정치 · 군사적 자주권 회복



• 외교적 영향력 확대

생각해 봅시다!



제 4 부

2011 KINU

민·아·재·민·교·과·부

알기쉬운
통일교육

12 주제

프리젠테이션